(2015. 12. 16(수) ~ 12. 20(일) 5일간 / 중국)

행정자치위원회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Ⅰ. 연수개요 ····· 1

Ⅱ. 연수국가 현황 ····· 4

1 중 국 ····· 4

2 황산시 ····· 7

3 상해시 ····· 8

Ⅲ. 주요 연수내용 ····· 10

1 중국 황산풍경구 관광인프라 시찰 ····· 10

2 상해 도민회 및 한국관광공사 상해지사 간담회 ····· 15

3 전라북도중국사무소 업무보고 청취 및 현지의정활동 ··· 18

4 상해임시정부청사 방문 및 윤봉길 의사 기념관 참배 ··· 22

Ⅳ. 연수성과 ····· 26

Ⅴ. 연수후기 ····· 28

Ⅰ 연수개요

□ 연수목적

○ 전라북도 중국사무소가 2012년 7월 상해로 이전함에 따라 현재 운영상황에 대한 현지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며,

○ 최근 상해 이전과 관련하여 이전의 필요성 및 존치여부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됨에 따라 중국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전라북도의 대중국 진출 교두보로써 현재까지 활동상황과 운영성과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자 함

○ 또한, 거대 중국 관광시장 및 한국관광 마케팅 현황을 파악하고 중국의 선진 문화관광산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도 실정에 맞는 문화관광 정책을 발굴하고자 함

□ 연수개요

○ 연수기간 : 2015. 12. 16(수) ~ 12. 20(일) [4박5일]

○ 연 수 국 : 중국

○ 연수대상 : 9명 (의원 7, 의원보좌 1, 정책연구 1)

□ 연수내용

○ 중국사무소 업무보고 청취 및 현지의정활동 추진

○ 중국사무소 역할정립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논의

○ 중국 유학생 및 관광객 유치, 대중국 수출지원 및 투자유치 현황, 전라북도 홍보 등 중국사무소 활동상황 및 운영성과 현지점검

○ 재중도민회, 기업인 간담회를 통한 현지 애로사항 청취 및 전라북도 홍보

○ 한국관광공사 상해지사 관계자와의 간담을 통하여 중국 관광시장 및 한국관광 마케팅 현황 파악

○ 중국의 선진 문화관광산업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리도 실정에 맞는 정책 발굴 및 대안 제시

□ 연수자 명단

소속	직위	성명	성별	비고
계		9명	남 8 여 1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7명)	위 원 장	김 연 근 (Kim Yeon Geun)	남	
	부위원장	양 성 빈 (Yang Seong Bean)	〃	
	위 원	강 용 구 (Kang Yong Gu)	〃	
	〃	김 종 철 (Kim Jong Chul)	〃	
	〃	송 성 환 (Song Sung Hwan)	〃	
	〃	송 지 용 (Song Ji Young)	〃	
	〃	허 남 주 (Her Nam Joo)	여	
행 정 자 치 전 문 위 원 실 (2명)	직 원	강 경 남 (Kang Kyung Nam)	남	
	〃	박 미 권 (Park Mi Kwon)	〃	

□ 연수일정

일 자	연수지역	주요일정	비 고
12.16 (수)	출 발	○ 전주 집결 ○ 인천국제공항 출발 ○ 황산국제공항 도착	1일차
12.17 (목)	황 산	○ 황산풍경구 관광인프라 시찰	2일차
12.18 (금)	상 해	○ 상해도민회 및 한국관광공사 상해지사 간담회	3일차
12.19 (토)	상 해	○ 전라북도중국사무소 업무보고 청취 및 현지의정활동 ○ 상해임시정부청사 방문 ○ 윤봉길 의사 기념관 참배	4일차
12.20 (일)	도 착	○ 상해국제공항 출발 ○ 김포국제공항 도착 ○ 전주 도착 후 해산	5일차

II 연수국가 현황

1 중 국



□ 일반현황

○ 국　　명 :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 수　　도 : 북경(北京, 베이징)

○ 면　　적 : 960만㎢(한반도의 44배, 세계 3위)

○ 인　　구 : 약 13억 6,072명(대만, 홍콩, 마카오 제외)

○ 민　　족 :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약 1억1천만명, 총인구의 8.5%)

※ 조선족 : 183만여명(소수민족의 1.6%)

○ 언　　어 : 중국어(지역에 따라 소수민족언어 병용)

□ 정치현황

○ 정　　체 : 노농연맹에 기초한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국가

○ 행정구역 : 22개성, 4개 직할시, 5개 자치구, 2개 특별행정구

○ 유엔가입 : '71. 10월(안보리 상임이사국)

□ 경제현황

○ 화폐단위 : 元(1$ = 약 6.2元)

○ 외환보유고 : 3조 8,200억불

○ 교역규모 : 4조 1,604억불

- 수출 2조 2,101억불, 수입 1조 9,503억불, 수지 2,598억불 흑자

○ GDP : 9조 1,814억불

○ 1인당 GDP : 6,800불

○ GDP 성장률 : 7.7%

○ 산업비중 : 1차 10.1%, 2차 45.3%, 3차 44.6%

□ 국방현황

○ 총병력('13년) : 총 약 233만명(무경 약70만 별도)

- 육군 160만명, 해군 23.5만명, 공군 39.8만명, 제2포병 10만명

○ 국방예산('14년) : 약 1,320억불

□ 한국과의 관계

○ 1992년 8월 24일 수교 이래 한중 양국관계는 제반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이러한 양호한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

※ 한·중 관계 발전 경과

- 1992년 수교시 우호협력관계 설정
- 1998년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 관계"설정(김대중 대통령 방중 계기)
- 2003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설정(노무현 대통령 방중 계기)
-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설정(이명박 대통령 방중 계기)
- 2013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합의(박근혜 대통령 방중 계기)
- 2014년 시진핑 주석 및 박근혜 대통령 상호 방문

○ 대중국 교역(2013년 기준)

- 교역 : 2,289.2억불(무역수지 628.2억불 흑자)
- 수출 : 1,458.7억불(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 수입 : 830.5억불(반도체, 컴퓨터)

※ '13년 기준,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 수입, 교역대상국
한국은 중국의 수입 1위, 수출3위, 교역상대국 3위(홍콩 제외)

○ 대중국투자(신고액) : 40.8억불

- '68 ~ '13년까지 누계 : 616.2억불

○ 인적교류 : 총 829.6만명

- 방중 369.9만명, 방한 432.7만명
- 유학생 : 한국내 중국유학생 50,343명, 중국내 한국유학생 63,488명

○ 체류자수

- 한국체류 중국인 약 78만명(조선족 45만명 포함)
- 중국체류 한국인 약 80만명 ※ 북경 재중한국인회 추정

○ 항공편수('14년8월 기준) : 여객 97개 노선

- 우리측 44개 주432회, 중국측 53개 주446회

2 황 산 시

□ 일반현황

○ 위치/면적 : 안휘성 남부, 9,807㎢

○ 인　　구 : 149만명

○ 행정구역 : 區 3개, 縣 4개

명 칭	둔계구	황산구	휘주구	흡현	휴녕현	이현	기문현
면적(㎢)	249	1,669	424	2,236	2,125	842	2,257
인구(만명)	17	16	10	49	28	10	19

○ 기　　후 : 연평균 15～16℃, 강수량 1,670mm

○ 주요자원

- 광산자원 : 석회암, 화강암, 금, 동, 보크사이트, 중정석, 크리스탈 등
- 관광자원 : 세계문화재인 황산(黃山) 4대 도교(道敎) 명산중의 하나인 제운산(齊雲山), 태평호(太平湖), 중국역사문화 유명거리로 유동하는 청명상하도(淸明上河圖)로 불리는 둔계노가(屯溪老街)
- 특 산 품 : 차, 표고버섯, 석이(石耳)

○ 역사문화 : 옛 휘주(徽州), 1987년 황산시(黃山市)로 개명, 춘추전국시대 오(吳)나라에 소속

□ 경제현황

○ G　D　P : 309.3억 위안(1인당 GDP : 20,846위안), 전년대비 13.1% 증가

○ 산업구조 : 1차 12.7%, 2차 44.1%, 3차 43.2%

○ 재정수입 : 44.3억 위안, 전년대비 41.8% 증가

○ 주력산업

- 공　　업 : 채굴, 전력, 장비, 방직 등 산업 위주
- 관　　광 : 관광수입 202.1억 위안, 국내외 관광객 연 2,544.7만명

○ 무　　역 : 수출입 총액은 32,766만 달러, 수출 24,925만 달러, 수입 7,840만 달러

○ 외자유치 : 실제외자이용액 17,414만 달러, 외국인 직접 투자액 14,263만 달러

□ 공공시설

○ 항　　공

- 황산둔계공항 : 북경, 상해 등 운항
- 철　　도 : 고속철도
- 도　　로 : 총연장 5,522km
- 수　　상 : 황산항구, 관광객들은 배를 타고 화산 등 19개 관광항구에 갈 수 있으며 안휘성내 제2의 항구

○ 교육현황 : 대학생 15,102명, 고등학생 26,983명, 중학생 43,850명, 초등학생 66,386명

○ 의료시설 : 총 536개, 병원 29개, 위생원 101개, 의료인력 6,173명

○ 과학기술 : 국가 및 성급 연구경비 3,204만 위안, 전매특허 수여 312개

3 상 해 시

□ 일반현황

○ 위　　치 : 양자강 삼각주지역으로 東으로 東海, 南으로 항주만, 西로 강소성과 접함

○ 면　　적 : 6,340.5㎢ (중국전체 0.06%)

○ 인　　구 : 2,500 만 명

○ 행정구역 : 16개 區, 1개 縣 ▷ 개발구 : 국가급 7개, 市급 14개

○ 중국에서 3번째 큰 섬인 숭명도(崇明島:1,041㎢)가 있음.

○ 해외자매(우호협력)도시 : 53개 국가, 75개 도시 ▷ 62개국 해외 총영사관 설치

□ 경제현황

○ 지역총생산 : 21,602.12억 위엔 ▷ 1인당 GDP 14,442.33달러

○ 교역규모 : 4,413.98억 달러 ▷ 수출 2,042.44억 달러 수입 2,371.54억 달러

○ 컨테이너 물동량 : 3,361.7만 TEU(세계 1위) ▷ 화물 처리량 7.76억 톤

○ 금융시장 교역액 : 639만 억 위엔 ▷ 제3차 산업비중 62.2%

○ 상해시 푸동공항은 중국 3대 공항(베이징, 홍콩)의 하나

▷ 해외 여객수속량 중국 1위, 화물 수송량 세계 3위 차지

○ 궤도교통: 11호선 2기 공정 및 12호선, 16호선 운행개시

▷ 2013년도 궤도교통 추가개통 99km, 궤도교통 총 길이 538km

○ 주요산업 : 마이크로전자, 조선, 자동차, 철강, 발전설비, 정보통신, 화공

□ 기타현황

○ 상해시, <2013 중국 도시경쟁력 블루북> 중 3위 ▷ 홍콩(1위), 선전(2위)

○ 신규 국가 과학기술 중요 전문 아이템 94개 접수

○ 신규 일자리 60.1만 개 추가 ▷ 농촌 실업률 4.2%

Ⅲ 주요 연수내용

1 중국 황산풍경구 관광인프라 시찰

□ 방문개요

○ 일　　시 : 2015. 12. 17(목)

○ 장　　소 : 황산풍경구

○ 주요내용

- 중국의 선진 문화관광산업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리도 실정에 맞는 정책 발굴 및 대안 제시
- 중국의 세계자연문화유산 관리 및 운영실태 파악
- 우리도 관광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관광상품, 우수시책 등 정책 자료 수집

□ 황산소개

○ 진나라 때 황산은 이산(移山)이라고 불렀으며 이후 당나라 현종 때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고 전한다. 중국 안후이성 후이저우[徽州] 지구 서북쪽 4개의 현에 걸쳐 있으며 둘레가 250km에 이른다. 이곳에는 2개의 호수, 3개의 폭포, 24개의 계류, 해발 1000m가 넘는 72개의 봉우리가 있다. 봉우리는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 중심부에 3대 주봉인 연화봉(蓮華峰, 1864m)·광명정(光明頂, 1840m)·천도봉(天都峰, 1829m)이 솟아 있으며 연화봉이 황산의 최고봉이다.

○ 황산 일대의 지질은 고생대의 편마암·사암·점판암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1억 년 전에 형성되었다. 바위는 수직 방향의 절리가 발달하여 깎아지른 절벽이나 기암괴석을 이루고, 해발 800m 이상의 고지대에 자라는 잎이 크고 짧은 소나무와 함께 한폭의 산수화처럼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어 낸다. 특히 연화봉과 천도봉 사이 암벽에서 자라는 천년고목인 영객송(迎客松)은 황산을 찾는 손님을 영접하는 소나무로 유명하다. 황산의 독특한 절경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운해(雲海)는 연간 200일 동안 자욱하게 끼여 있는데 대표적인 풍경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산 계곡이 깊어 구룡폭포(九龍瀑布), 백장폭포(百丈瀑布) 등이 흘러내린다. 서양 사람들이 황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동양의 산수화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한다.

○ 관광객들을 위하여 4만 개에 이르는 돌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황산입구 자광각(慈光閣)에는 정상으로 오르는 케이블카가 만들어져 있으며 옥병루 방향으로 오를 수 있다. 정상 부근에는 3개의 호텔이 있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 남쪽 기슭의 탕커우[湯口]에는 일년 내내 온천이 뿜어져 나온다. 절·묘(廟) 등도 많아 관광·휴양지가 되어 있다. 또한 황산 자락 일대에서 생산되는 녹차는 최고의 품질로 평가받는다. 1990년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 세계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지정하였다.

□ 방문결과

① 황산풍경구 관리실태

- 황산은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국가5A급 관광 유적지로 기송, 괴석, 운해, 온천, 동설의 5가지 절경이 유명하며, 총면적은 1,200㎢로 4개현 5개시에 걸쳐 있고(설악산의 3배 크기) 72개 봉우리와 24개 골짜기가 있음
- 1989년 안휘성 인민상무위원회에서 황산풍경명승구 관리 조례를 제정, 황산풍경구관리위원회(황산시장이 주임을 겸함)를 설립하여 집중적으로 황산을 관리하고 있음
- 1979년 등소평은 황산의 비경을 보고 남녀노소 누구나 황산을 보고 즐기게 하라고 지시했고, 20여년에 걸쳐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에서 산의 형태를 본 딴 쓰레기통 3,000여개와 나무 및 원숭이 모양을 한 난간 등 자연환경과 어울리게 등산로를 정비함

②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황산시 우수시책

- 2014년 7월 정식으로 서해대협곡 모노레일을 운영, 관광객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함
- 황산시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함께 삼림욕을 즐길 수 있는 황산 송백골프장(36홀), 태평와호골프장(18홀) 등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새로운 레저문화를 개발하고 있음
- 볼거리로는 황산의 풍광과 지역문화를 배경으로 한 3대 휘주문화쇼 휘운가무쇼, 홍춘아구쇼, 화산미굴쇼를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음
- 제3회 안휘성 국제여행업 대회, 2014년 전국 군중 등산 건강대회, 제11회 중국황산국제 등산대회, 2014년 중국 이현 촬영대전, 제7회 중국 황산 국제 온천문화관광 축제, 2014년 중국 휘주 국제 향촌 걷기대회 등 다양한 국제 관광축제를 개발 개최하고 있음

- 한국은 황산시의 제1의 외국 관광시장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등산, 골프, 온천 등의 관광 상품이 한국 관광객에게 인기를 끌고 있어 2014년 11월 황산시 관광상품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광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현재 황산시에는 80여개 호텔(5성급 4개, 4성급26개)과 155개 여행사가 있으며 관광 및 여행 관련 종사자만 20여만명으로 관광산업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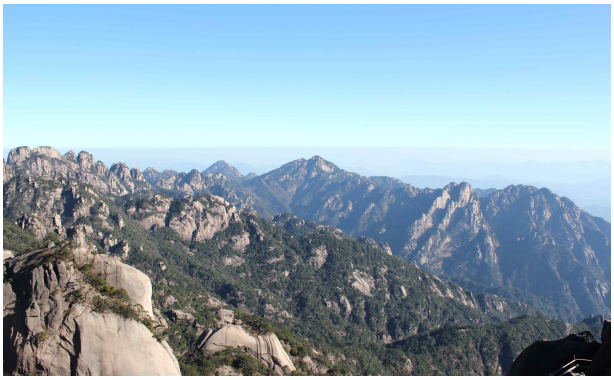
□ 시 사 점

○ 세계적인 고대유산과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중국내 유명산에 케이블카를 구축하는 등 중국 관광정책의 혁신적인 발상과 과감한 투자를 벤치마킹하고 선진 관광대국 중국의 면모를 직접 체득함

○ 전라북도의 경우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단체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반면, 중국은 비록 사회주의국가이긴 하지만 관광산업에 대한 거시적 관점에서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고 과감한 관광객 유인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관광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음을 자각하여 도정발전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임

○ 도내 문화유산을 최대한 보존하고 환경피해 최소화에 주력하면서 개발가능한 곳은 시급히 개발하여 전 세계인들로 하여금 전라북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유산을 공유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관광수입 극대화와 함께 체계적인 보존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임

□ 사진자료



황산 전경



황산 전경



황산 전경



황산 돌계단



황산 돌계단



황산 영객송



황산 정상



황산 정상 호텔

2 상해 도민회 및 한국관광공사 상해지사 간담회

□ 간담개요

○ 일　　시 : 2015. 12. 18(금)

○ 장　　소 : 상해 한인타운 내 한식당

○ 면 담 자 : 상해 도민회 및 한국관광공사 상해지사 관계자

○ 주요내용

- 재외국민 권익보호 실태 및 현지 애로사항 청취
- 전라북도 홍보 및 전북출신 교민들과의 소통의 시간
- 중국 관광시장 현황 파악 및 중화권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
- 전라북도 대중국 관광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자료 수집

□ 간담결과

① 상해 도민회

- 상해 도민회원들을 활용하여 중국진출 방안 모색 및 현지 경제활동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성공사례, 경험사례 발표회 개최 건의
- 중국 내 위챗 등 앱을 활용한 경제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건의
- 재외도민들에 대한 상호교류 및 지원강화를 위한 근거 마련 건의
- 정기적인 간담을 통해 재외도민들의 원하는 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외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라북도 차원의 지원책을 발굴하여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함

② 한국관광공사 상해지사

- 중국 최대 인터넷 관광회사 휴정 임원진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도내 중화권 관광객 유치 활동 지원
- 전북의 한스타일 관련 사업에 대한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독창적이고 차별화되는 관광마케팅 전략이 필요
- 전북은 다양하고 매력적인 콘텐츠가 많이 있지만 숙박시설 및 중화권 전문여행사 부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함
- 국내여행사 및 중국 현지여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라북도 홍보 전략 마련 필요
- 중화권 관광객의 효율적인 전북 유치를 위해서는 중국현지에 대한 홍보활동도 중요하지만 국내여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도 필요
- 중국내 한류상품 관련 박람회를 수시로 참가하여 최신 한류 동향 파악 및 중국 현지인 의견 수렴 필요
- 중국내 각종 박람회 참가기업 및 참관객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홍보 및 한류상품 기업과의 네트워킹 구축

  ▷ 한국관광공사, 한국방문위원회, 한국공연관광협회, 리컨벤션, 앤모아, 상황미인 등
- 2016년 중국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전라북도와 한국관광공사와의 중화권 관광객 유치 공동설명회 개최 논의
- 기존 한류 및 관광산업 전문기관(KTO, K WAVE, 문화재단,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전라북도와 협업 가능한 사업 발굴 필요

□ 사진자료



간담회



간담회



간담회



간담회



간담회



간담회



간담회 기념촬영



간담회 기념촬영

3 전라북도중국사무소 업무보고 청취 및 현지의정활동

□ 방문개요

○ 일　　시 : 2015. 12. 19(토)

○ 장　　소 : 상해 전라북도중국사무소

○ 면 담 자 : 전라북도중국사무소 관계자

○ 주요내용

- 중국사무소 기능 및 운영성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현지의정활동 추진
- 중국사무소 역할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주요 논의내용

○ 중국사무소 역할정립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논의

○ 중국 유학생 및 관광객 유치, 대중국 수출지원 및 투자유치 현황, 전라북도 홍보 등 중국사무소 활동상황 및 운영성과 현지점검

○ 전라북도의 대중국 진출 교두보로써 효과적인 대외활동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표 직급을 상향해 줄 것을 요구

○ 현재 중국의 국제적 지위가 갈수록 향상되고 있고 중국과의 분야별 교류협력를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며 중국사무소의 역할 및 위상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인력 충원을 포함한 중국사무소의 조직 재정비를 요구

○ 중국 현지직원에 대한 필요성, 전문성을 감안한 보수 현실화 요구

□ 중국사무소 현지의정활동 결과

① 중국사무소 조직 정비

- (대표직급 상향) 대표 직급(6급)이 낮아 효과적인 업무수행에 저해가 되는 바, 대표 직위에 맞는 직급(5급) 상향 조정 필요
- (6급 직원 충원) 교류 협력지원, 투자 및 관광객 유치 등 중국사무소 역할 증대가 필요한 바, 위상에 맞게 6급 정원 추가 확보 후 신속 충원

② 현지인 직원 보수 현실화

- 현지인 직원은 언어 전문성(한국어, 중국어 능통자)을 겸비하고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과 관광객 유치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보수가 도청 기간제 근로자 수준에 불과
- 전문성을 감안하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역할에 걸맞는 보수 인상* 필요(관련 규정 정비하고, 추경시 예산 반영)

  * 평직원 기준 수당 제외 100만원 정도

③ 중국사무소 내 전시물품 재정비

- 도지사 인증상품 등 각 시군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전시물품을 재정비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교체
- 진열된 물품을 시식할 수 있는 방안 마련

④ 대학 및 도-시군 중국 유학생의 한국 이미지 제고 필요

- 전라북도 외국인 유학생이 2013년 기준 2,921명에서 2015년 기준 2,894명으로 조금씩 줄고 있고, 유학 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는 실정임
- 중국인 유학생 유치도 중요하지만, 유학생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유학생 사후관리 등 이미지 제고방안 마련

⑤ 중국사무소 기능 강화

- 시군인력 파견 등 시군과 연계 중국관련 인력풀 확보, 한·중 FTA 발효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자매지역(강소성 등)과의 교류강화, 상하이・칭다오 도민회 활성화 방안 마련

⑥ 도 및 각 대학 홍보용 달력 확보

- 도 및 각 대학 홍보용 달력 등을 확보하여 우호교류기관, 도민회, 중국내 대학 등에 배포하여 우리도 적극적 홍보

⑦ 여비 현실화 및 경제통상진흥원 소속의 시스템 개선

-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여비 현실화, 중국사무소가 서류상으로 경제통상진흥원 소속하에 있는 바, 실제 업무에 맞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직으로 개선 필요

□ 사진자료



상해사무소 입구



상해사무소 입구



상해사무소 내부



상해사무소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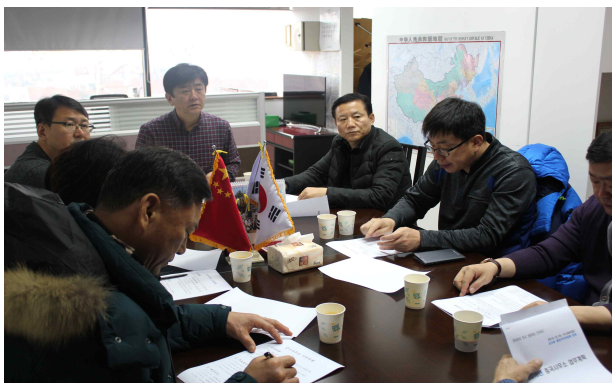
업무보고 청취 및 현지의정활동



업무보고 청취 및 현지의정활동



업무보고 청취 및 현지의정활동



업무보고 청취 및 현지의정활동

4 상해임시정부청사 방문 및 윤봉길 의사 기념관 참배

□ 방문개요

○ 일　　시 : 2015. 12. 19 (토)

○ 장　　소 : 상해임시정부청사, 윤봉길 의사 기념관

○ 주요내용

- 2015년 9월 4일 재개관한 상해임시정부청사 방문
- 윤봉길 의사 기념관 참배
- 중국내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방문을 통한 역사의식 및 민족정신 고취
- 재외 문화재 및 유적지들에 대한 현지 관리현황 및 실태파악

【김연근 행정자치위원장】

- 상해임시정부청사는 1919년 3·1운동의 결과로 수립된 국내외 8개의 임시정부가 하나로 통합을 이루어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민족사적 의미를 지닌 곳이며, 우리 독립항쟁 유적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한중 양국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물임
- 또한, 상해임시정부청사와 윤봉길 의사 기념관은 수많은 선열들의 고귀한 애국정신을 널리 알리고 우리 역사의 뿌리와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살아 있는 역사 교육의 장이며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 측과 협조해 중국내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보전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유적지 소개

① 상해임시정부청사

- 일제 강점기에 상하이를 무대로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가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3·1 운동이 일어난 직후 조직적 항거를 목적으로 상하이로 건너간 독립투사들이 활동하던 본거지다. 1919년 4월 11일, 민족 지도자 대표 29명이 상하이에 모여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대한민국' 이라는 국호가 정해졌고 민주공화제를 표방하는 임시헌장을 공포했다. 이어 4월 13일, 조국의 광복을 염원하며 상하이 임시정부가 출범했다.

- 독립투사들의 애환과 비장한 애국정신이 서린 이곳은 1926년부터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있었던 1932년까지 임시정부청사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일본의 계속된 감시와 탄압으로 독립투사들은 항저우, 전장, 창사, 광저우, 류저우, 치장, 충칭 등 중국의 여러 지역으로 청사를 이전해야 했다. 1989년에는 상하이의 도시개발 계획으로 임시정부청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상해임시정부청사는 한중 수교 이후 지속적인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요청에 따라 1993년 4월에 최초로 개관하고 2001년 12월에 시설을 확장하였으며, 한중수교 70주년을 맞아 2015년 9월 4일에 보수하여 재개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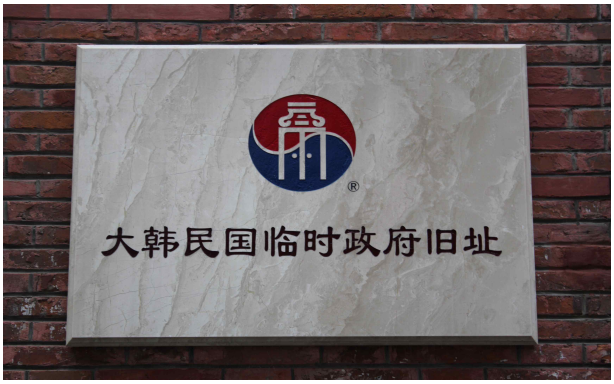
-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는 중국 내 남아 있는 가장 대표적인 청사이자 중요한 역사성을 간직한 곳이다. 상하이 도심의 뒷골목, 낡고 허름한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3층짜리 빨간 벽돌 건물이 바로 임시정부청사다. 관광객들은 정부청사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과 달리 규모가 협소하고 초라한 모습에 놀라기 마련이다.

-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입한 후 1층으로 들어서면 먼저 안내원의 설명에 따라 임시정부의 활약상과 청사 복원에 관한 내용을 다룬 10분 분량의 비디오를 시청한다. 2층에는 이승만, 박은식, 이동녕 등이 사용했던 집무실이 있고, 3층에는 침실과 임시정부와 관련된 자료들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관이 있다. 임시정부청사 시절에 사용된 가구, 서적, 사진 등도 볼 수 있다. 한때 주권을 상실했던 조국의 비애를 느낄 수 있는 현장에서 생생한 역사 공부를 할 수 있어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나 현장학습단의 방문이 많다. 청사 안에서의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다.

② 윤봉길 의사 기념관

- 매헌(梅軒) 윤봉길 의사가 1932년 일본군 요인을 폭살한 훙커우 공원의거[虹口公園義擧]를 기념해 상하이시 훙커우구 인민정부와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건립하였다. 기존에 세워진 윤봉길 의사 기념 정자인 매정(梅亭)을 한 차원 승격시켜 2003년 12월 4일 개관하였다.
- 공식 명칭은 '윤봉길의사 생애사적전시관' 이다. 지상 2층 건물로, 1층에는 출생에서부터 농민부흥운동, 훙커우공원의거 때까지의 사적을 보여주는 유품 6점과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2층에는 의거 이후의 사적, 의거의 역사적 의의와 한국·중국에 미친 영향,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 등에 관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 그밖에 의거 때 사용했던 폭탄과 같은 도시락 폭탄, 수류탄과 혈서를 들고 한인애국단에 입단할 당시의 사진, 친필 편지, 장렬한 죽음 장면, 새로 만든 흉상 등도 볼 수 있다. 상하이 루쉰공원[魯迅公園:옛 훙커우공원]에 있다.

□ 사진자료



상해임시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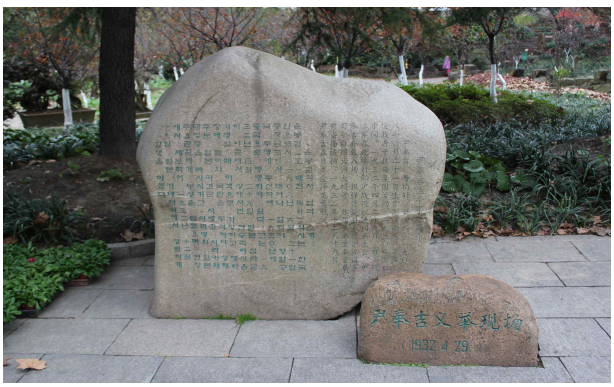
영상물 시청



김구선생 집무실



상해임시정부 내부



윤봉길 의사 기념관



윤봉길 의사 기념관



윤봉길 의사 매헌 기념관



윤봉길 의사 기념관 참배

Ⅳ 연수성과

○ 중국사무소에 대한 현지의정활동을 통하여 중국사무소 운영에 대한 방향성 제시 및 적정한 예산·인력 지원 방안 논의

○ 도내 기업체 수출지원 및 중국내 도내기업체 지원현황 현지 확인을 통하여 전라북도의 대중국 수출전략 제시

○ 새만금 및 도내 관광상품(관광명소, 패키지 등) 홍보현황에 대한 현지점검으로 대중국 관련 홍보전략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 중국의 기업, 자본, 관광객, 유학생 유치 등 대중국 관련 도정의 올바른 정책수립 및 로드맵 정립을 위한 정책자료 수집

○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지원 받는 해외협력사업 사례와 실태를 현지 의정활동을 통하여 비교해 보고 실효성 및 향후 지원방향성 제시

○ 현지 간담회 개최로 재중도민 애향심 고취 및 출향도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전라북도 홍보 방안 모색

○ 한국관광공사 상해지사를 방문하여 중국 관광시장 현황 파악 및 대중국 한국관광 마케팅 전략 청취를 통한 관련분야 정책자료 수집

○ 중국의 관광객 유치 우수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우리도 실정에 맞는 관광정책 발굴 및 접목 방안 모색

○ 국외연수를 통해 현지사정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도내 기업들(사업체)의 대중국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입법활동 방향성 제시

○ 연수국에서 체득한 다양한 국제 경험을 통하여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기여

○ 행정자치위원들의 창의적 인식개선과 국제화 마인드 함양으로 정책전문가로서의 의정역량 강화

○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 되면서 전라북도에 꼭 필요한 맞춤형 시책발굴을 통한 의정활동 역량강화

○ 역사와 문화를 현장체험 함으로써 도정 주요시책의 견제와 더불어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기여

Ⅴ 연수후기

○ 전라북도 상해사무소 현지의정활동을 겸하여 이루어진 금번 국외연수는 우리나라와 가장 인접한 국가로서 정치·경제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중국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전라북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음

○ 상해도민회 간담회, 상해사무소 업무보고를 통해 초강대국 중국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으며 전라북도라는 작은 틀에 갇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지냈던 지난 시간들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음. 간담회와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전북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들은 꼭 도정에 반영하여 전북 발전의 자양분으로 활용할 것을 다짐함

○ 또한, 상해자유무역지구, 상해국제금융센터 등을 통해 새만금사업, 동북아금융중심지 등 전라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략사업들에 대한 맞춤형 벤치마킹 사례로써 다양한 정책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동시에 이러한 사업들은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전라북도 차원의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면밀하고 체계적인 전략수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음

○ 금번 중국 국외연수는 국제화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증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관광 등 사회전반에 대하여 체험하며 교류하는 뜻깊은 연수였음. 아울러 이번 연수는 우리 행정자치위원들의 국제적 감각과 전북발전 마인드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